

제목: 학교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대전만년초등학교/ 교사/ 배상철

I. 서론: 학교 생태전환교육 추진

1. 학교 생태전환교육 과정

가. 관련 법률

1)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범교과 학습 주제인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학교 생태전환교육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2) 교육기본법 개정(제18456호, 2021.9.24. 일부개정)

제3장 교육의 진흥 제22조의2(기후변화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2021.9.24.신설)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854호, 시행 2022.1.6.)

제2조(정의)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

제4조(책무)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2021.11.24.)

(추진 배경)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 비전의 정립과 수업 및 평가 개선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체제 전환 필요

학습자의 공동체 가치 함양 및 역량 강화에서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전환교육을 설명하고 있음. 생태전환교육은 기후변화와 환경재난 등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모든 분야와 수준에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이라고 개념을 정의함

나. 학교 생태전환교육 현황

1) 국내 현황

-1992년에 제6차 교육과정 개편에서 환경 교과목을 중등 독립 선택과목으로 채택

-2008년에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으로 환경교육의 법적 기반 마련

-2011년부터 5년 단위로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을 실행하고 유치원에서는 ‘신체운

동·건강’, ‘자연탐구’ 영역으로 초등 및 중학교에서는 도덕, 사회, 과학 등의 교과목에 환경에 관한 내용 포함하였으며 중학교에서는 선택과목으로, 고등학교에서는 교양 선택과목으로 환경교육 실시

-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주제로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채택
-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중등교육 약 24만 4000명 중 환경 교과 담당 교원은 104명 (0.04%)이고 이중 환경 교원 자격 소지자는 35명뿐

2) 국외 현황

-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공립학교 교육과정에 기후변화 관련 내용 공식 도입
- 캐나다는 ‘지속가능성’ 개념을 바탕으로 전 학년, 전교과에 통합적 운영
- 영국은 통합교과 차원에서 생태환경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
- 독일, 프랑스는 UN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의 실천으로 관련 교과에 반영
- 이탈리아는 초,중,고 주당 1시간씩 연간 33시간 기후환경교육 필수화
- 필리핀은 모든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10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함

II. 본론: 학교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사례

1. 학교 생태전환교육의 방향

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1) 유니세프 아동의회 1기 아동정책 제안서

-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만들거나 실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을 말함
- 기후위기나 환경재난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 하기 위해선 학교환경교육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함
- 기후위기로 아동 및 청소년이 가장 침해 받고 있는 권리는 바로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임
- 관련 규정 제개정을 위해선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함

2) 지구생태시민으로 성장

- 환경문제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생태감수성
- 환경과의 관계를 주체로서 인식
- 기후위기는 전지구적인 문제로 인식
- 인권, 불평등, 차별 등의 문제로 확장
-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

나. 학교 인식의 변화

1) 참여와 협력

- 자연보호, 생태체험학습의 환경교육을 넘어 인권, 빈곤, 민주, 다문화, 평화 등의 문제와 함께 포괄적으로 이해
-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전 시민의 참여를 통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 지자체, 공공

기관, 마을,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으로 실천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전환 등 국제적 협력뿐 아니라, 지역에 기반을 둔 마을과 학교가 연계하고 협력하여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이웃과 자연을 고려하면서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힘과 스스로 서는 힘’을 키워나가야 함

2) 제도적 지원

-교육기본법, 환경교육진흥법,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등의 재개정

-교원의 기후환경교육 역량제고, 전담팀 설치, 협력체제 구축 및 예산 지원

-학교급별 교육과정 운영에 환경생태교육 요소 반영

-환경 선택과목 확대 및 범교과주제학습 반영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진로체험, 동아리활동, 환경 프로젝트 등 활용

2. 학교 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학교

1) 그린에너지 전환 실천교육 확산

-시교육청, 산하기관, 학교 등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 전환 인식 제고

-재생에너지 시설 및 탈탄소 관련 시설을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

2) 탄소배출-제로 학교 구현

-에너지전환을 위한 학교 에너지 시스템 구축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 단열, 창호시설, 조명시스템, 배기 등 에너지 효율화 확산

-전기, 상하수도 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나. 학교 내 녹색생활 실천

-학교 숲 이릅포 달아주기, 상자텃밭 조성 등 적극적인 학생 참여 프로그램 개발

-곤충생태체험관, 작은 연못 등을 활용한 빗물저금통 등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아나바다 운동, 학교 숲 새집 달아주기, 1회용품 사용 줄이는 방법 찾기, 자전거 타기 등 오감만족 활동을 통한 내면화 실시

-교육과정 내 교과 및 재량활동을 통한 학생 주도 실천 프로젝트 실시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1]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2]



[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 사례1]



[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 사례2]

다. 학생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생활 속 실천

- 교통수단 관련 가족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자동차, 자전거타기, 친환경 운전하기 등 실천
- 에너지 사용 관련 불필요한 전기, 조명사용 줄이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태양광 설치
- 일회용품 관련 플라스틱 줄이기, 배달 음식 줄이기, 텀블러 사용, 장바구니 활용 등
- 생활 속 물 아껴쓰기, 계단 오르고 내리기, 냉장고 정리, 재활용 분리수거 철저 등
- 음식 관련 육류 소비 줄이기, 주 1회 채식하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생활 속 실천 자전거 타기 사례1]



[생활 속 실천 자전거 타기 사례2]

라. 지역사회 및 유관 기관과 연계 강화

- 마을교육공동체와 학교가 결합한 생태중심공동체학교 운영
- 학교와 마을이 연계하는 학생 주도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운영
- 제로웨이스트샵 이용 활성화를 통한 생활화
- 학교 및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실천중심 프로젝트 운영
- 수련체험 및 가족캠프 참여, 자연체험농장, 주말농장 운영 등
- 국제기후환경센터,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에코바이크, 녹색연합, 환경연대, 환경보전협회, 지방기상청, 환경공단, 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여러 기관과 협력

Ⅲ. 결론: 학교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에 대한 제언

1.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정리

가. 생태전환교육에 사용할 용어에 대한 개념과 정리 필요

- 기후위기, 기후변화, 환경, 생태 등 포괄적인 개념과 세부적인 개념 정리 필요
- 생태관점에서의 환경, 환경관점에서의 생태, 생물학적 환경 등
- 생태전환교육, 기후환경교육 등
- 지구생태시민, 민주시민 등 시민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른 개념 정리 필요
- 선택교과, 범교과, 창의적체험활동 등에 활용할 교과명과 주제 명확화 필요

나. 생태전환교육 추진 필요성

- 더 늦기 전에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관련 교육 필요
- 인간 중심 환경교육이 아닌 생태 중심 환경교육 필요
-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필요
- 코로나19 시대상으로 인한 일회용 마스크, 배달용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등 생활쓰레기 대란에 따른 해결 방안 및 대처에 대한 준비 필요
- 종이 없는 회의, 플라스틱 없는 행사 등 생태행동을 실천하는 조직문화로의 전환 필요
- 지구를 위한 개인적 실천을 넘어 사회적 변화까지 이끄는 네트워크 구축 필요